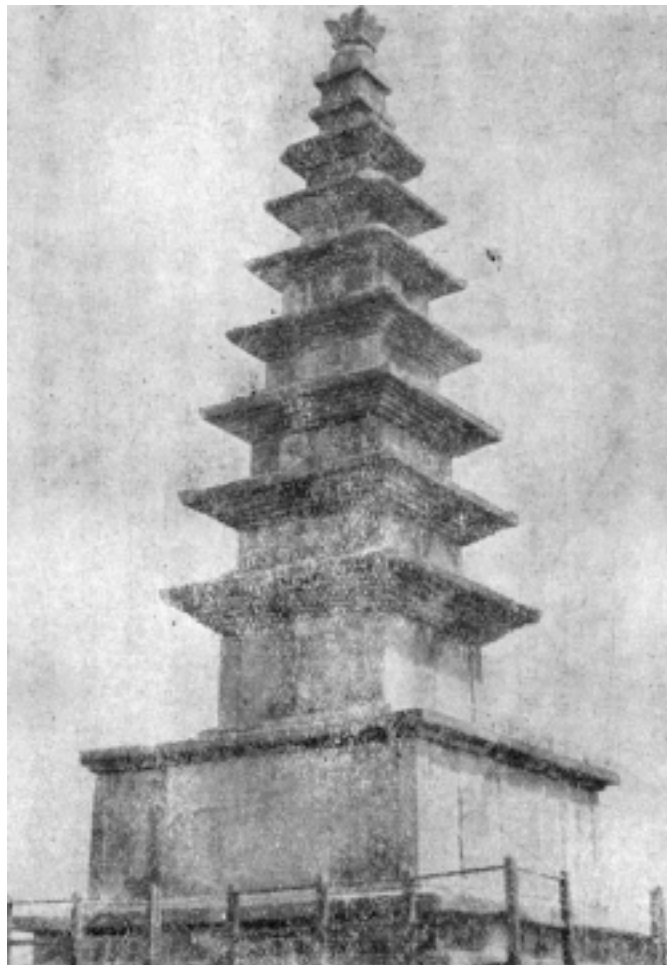


중원탑평리칠층석탑
(中原塔坪里七層石塔)

(국보육호(國寶六號))

충북 증원군 가금면 탑평리(忠北 中原郡 可金面 塔坪里)



중원탑평리칠층석탑(中原塔坪里七層石塔)

우리나라의 석탑(石塔)은 재질(材質)이나 형식미(形式美)에 있어 세계적(世界的)으로 독특(獨特)하다. 좁은 반도(半島)안에, 현존(現存)하는 석탑(石塔)의 수(數)는 아마 천기(千基)를 넘을 것이다. 이들이 모두 사리(舍利)의 봉안처(奉安處)로서, 역사상(歷史上) 수(數)많은 선남선녀(善男善女)의 예배대상(禮拜對象)이 되었으니, 불교국(佛敎國)이 되었음은 물론(勿論), 오늘날 세계적(世界的)인 「탑과(塔婆)의 나라」가 되었다. 이들 현존

(現存)하는 석탑(石塔)의 수(數)로써 소장(消長)을 거듭한 사원(寺院)의 수(數)도 짐작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은 지금까지 사명(寺名)을 함께 전(傳)하지 못한다. 이 오층석탑(五層石塔)의 사명(寺名)도 알 수 없다. 지리적(地理的)으로 반도(半島)의 중앙부(中央部)에 위치(位置)한다는 생각에서 지방(地方)에서는 중앙탑(中央塔)이라고도 부른다. 강(江)가 언덕에 이 탑(塔)을 중심(中心)으로 가람(伽藍)이 즐비(櫛比)하던 때는 언제였을까? 불교국(佛敎國), 탑파(塔婆)의 나라를 그린 우리 선민(先民)들의 그림이나 글은 많지 못한것같다. 「남조사백팔십사 다소루대연우중(南朝四百八十寺 多少樓台烟雨中)」 운운(云云)한 당시(唐詩)는 개념적(概念的)이지만 시각적미감(視覺的 美感)과 역사적 감회(歷史的 感懷)를 불러 일으킨다.

이 탑(塔)의 높이는 14·5M, 우리나라 석탑(石塔) 중(中)에서 가장 높다. 1917年 개건(改建), 사리(舍利)가 장치(藏置)되어 있었다. 옥개석(屋蓋石)과 층급(層級)받침의 사오단수평선(四五段水平線)이 첫눈에 들어오며 정상(頂上)의 노반(露盤)으로 시선(視線)을 끌고 간다. 남방불교국(南方佛敎國)의 그것이나 구주(歐洲)의 꼬덕 성당(聖堂)에서 느끼는바, 고공(高空)에의 지향성(指向性)(수직성(垂直性))을 우리 탑(塔)에서도 볼수 있다. 그것은 목조전각(木造殿閣)에서 이루지 못한 꿈의 하나였을 것이다.